

La vita cambia

인생이 바뀌는 날이 있네
하느님이 젊으실 때도 있네
하느님의 젊은 자녀들이 있네
이들은 하느님과 진정한 자유에 내기를 거네.

더 이상 의심이 없나이다. 우리를 매혹시키고,
가슴을 흔들어놓는 하느님은 바로 당신이기에.
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..... 저를 데리고 가소서
당신 포도원의 포도넝쿨이 되겠나이다.

예수, 당신이 나의 인생
예수, 당신이 나의 영이고 열정이지네.
당신은 나에게 부유함과 존엄성이오니
제가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름다워요.

내 손에 든 당신의 색상이
희미해져가는 것들을 물들일 것이에요.
저의 영을 따스하게 해주는 불꽃이
모든 고통을 녹여주는 따뜻함이 될 거예요

예수, 당신이 나의 인생
예수, 당신이 나의 영이고 열정이지네
당신은 나에게 부유함과 존엄성이오니
제가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름다워요